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 일행은 밤 늦게 베냐민지파 기브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의 호의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지만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고 그녀는 그날 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베냐민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 지역에 도착했지만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성읍의 큰 거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때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보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었습니다(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기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레위인 일행은 다행히도 노인의 호의로 인해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러나 마을의 불량배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노인의 집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어휘는 히브리어 ‘야다’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브아 비류들은 레위인을 데려다가 남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악한 일을 연상케 합니다(창 19: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지 오래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성적인 죄(레위인의 중혼, 첩의 간통, 동성연애 등)에 깊이 빠져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집 주인인 노인은 자신의 손님인 레위인을 보호하고자 불량배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는 듯 했습니다(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노인의 제안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악한 레위인

레위인은 노인의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불량배들이 노리는 것은 외부 사람들인 ‘자신과 첩’인 것을 알고 자신 대신 첩을 그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부정했던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갈 때만 해도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본심을 나타내며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레위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자기의 본처가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가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하는 레위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불량배들은 레위인이 내어준 첩을 잡아 밤새도록 능욕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이 그녀를 놓아준 때는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그녀를 발견한 시점은 동이 튼 아침 이었습니다. 그것도 첩을 놔두고 에브라임 집으로 아침 일찍 떠나고자 할 때 그녀를 그 집의 문지방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노인의 앞 마당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싣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열두부분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절단된 시신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사건은 모든 지파들에게 큰 충격과 많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의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 마자 사사기 17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함께 레위인들의 타락상을 사사기에 덧붙인 부록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신당에서 봉사했던 레위인의 경우 물질과 명예의 유혹에 넘어간 사례를 그리고 있고 오늘 본문 레위인의 경우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기 전 중세 유럽에서도 많은 사제들이 이러한 돈과 명예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러가지 윤리적 타락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존경보다는 질타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 성도(교회가 싫어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은 신앙을 떠나고 있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한국 교회 전체의 영적 기상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모두가 각자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먼저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한국, 미국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와 미국 땅에 있는 이민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CM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CM에 속한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정안나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